

건강한 어린이 밝은 미래를 위해

(병 二월)

◇ 어린이 간호는 엄마 간호부터 ◇

신 문 애(성모병원 소아과)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은 어느 병동의 간호원이든 간에 누구나 뜻하지 않게 전경을 맡은 환자를 병원이라는 한정된 장소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간호하는 것을 체 1업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각 병동 나름대로의 특이한 문제점들을 갖게 되고 이에 따른 간호해결 방법도 다양하다. 이에 있어서 특징적인 소아간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임상에 있어서의 실제 몇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I. 소아간호의 특징

(1) 우선적으로 보호자와 간호원은 원만하고 생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병실에서의 환자간호가 간호원 손만으로 모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 있어서는 간호에 직접 참여하는 보호자와 간호원과의 의사소통 문제는

환자간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만하고 바람직한 보호자와 간호원과의 의사소통이 환자간호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표현이 정확치 못한 소아간호에 있어서는 보호자(대부분이 부모가 된다)와의 생산적인 의사소통은 필요 불가분한 문제다. 어린이가 입원을 하게 됨으로써 부모가 갖게 되는 불안은 다양하다. 우선 죄의식을 갖게 되며, 새로운 변화(병원환경, 질병 등)에 있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적당한 간호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 어린이가 당할 고통에 대한 걱정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이 복합되어 다양한 표현양상으로 의료팀에게 나타나게 된다. 소아과 간호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 해석하여 간단한 처치 하나하나에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며 또한 그려므로써 간호원은 환아 간호원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간호원 언니에게 바라는 마음

이 예 원(7歳, 여아, 병동 성모병원 소아과입원)

나는 간호원 언니를 그림으로 그렸다. 하얀 모자를 쓰고 주사를 놓으려고 들어오신다. 난 그래서 간호원 언니가 무서웠다. 그렇지만 그림에는 예쁜 얼굴로 그렸다. 호랑이 같은 얼굴을 그리고 싶었는데 언니가 싫어할 것 같았다. 언니들이 호랑이같이

무섭게 주사를 놓고 치료를 해줘서 나는 빨리 퇴원해서 집에 왔다. 언니가 우리 엄마같이 무섭지 않게 했으면 난 주사도 안 맞고 병이 날지 않아 집에도 못 왔을거야. 집에 와서 생각하니 언니가 예쁘고 너무 고마웠다.

▣ 특집 : 세계아동의 해와 간호사업

(2) 같은 처치에 대해 환아 개개인별로 다양하게 치료목적을 이해하고 간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성인의 경우 수액주사는 거의 대부분이 수액공급 및 그에 혼합된 약물의 투여가 목적이 되며 아주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주입속도의 제한없이 상례대로 적당한 주입속도로 혈관으로 투여함에만 간호원이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하지만 소아에 있어서 수액요법의 목적은 다양하다. 단순히 수액공급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항생제의 경맥내 투여를 위한 혈관보유가 목적일 수도 있고 또 가끔은 환아의 안정을 위한 활동제한에 그 목적을 둘 수도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간호문제도 다양하다. 즉 우선 연령, 월령별에 맞게 그리고 특별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입속도를 정확히 맞춰 주어야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되며 아주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환아에게는 microdropper라는 수액주입량 조절기를 추액 set에 부착시키기도 한다. 아주 어린 신생아나 활동을 못하는 환아에 있어서는 한 곳에 너무 오래 유지하여 반창고에 의한 피부염이나 경맥염이 생기게 되므로 자주 관찰하여 주사부위를 바꿔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영유아나 마구 움직이는 환아에 있어서는 혈관이 부어서 자주 다시 봐주어야 하며 혈관이 잘 나타나지 않는 환아에게는 주사 놓는데 숙련된 기술이 요하며 극한상황에는 cut down까지 하게 되기도 한다. 또 학령전기나 학령기의 환아에게는 혈관주사 유지에 대한 실리적 부담을 벌여주고 필요성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간호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소아간호는 같은 처치에 대해서도 연령별 질환별 환아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3) 여러 방면에 있어서의 안전매책이 간호원 지도하에 있어야 한다.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side rail을 올려주고 보호자에게도 세심한 주의를 지도시키며 역계대를 사용할 때도 몸에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당한 부위에 부착시키고 수액주사를 맞고

있는 환아에게는 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하며 특히 소아에 있어서 체온계 사용법 및 보관은 중요한 문제다. 안전틀이 되어 있지 않은 창가로 부터 환아를 떨리하는 등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자주 관찰하고 주의를 주어야 한다.

(4) 이외에도 장기환아에 있어서 성장발육에 관계된 영양 교육문제는 소아간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인 경우 자주 물무게를 채어 영양상태가 적당한가 점토 치료하고 학령전기, 학령기의 환아에게는 적당한 놀이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호자와 상담 지도하여야 한다.

II. 사례보고

(1) 패혈증을 동반한 심한 탈수증 환아 : 생후 9일 된 여아(Sepsis with Severe Dehydration)

입원당시 상황 : 병원에서 정상 분만한 생후 9일 된 여아로서 출생 당시 몸무게는 2.5kg였으며 출생 이후 집에서 우유영양을 섭취하면서 중 생후 4일째 부터 붉은 변을 보며 자주 보았으며 생후 5일째 부터는 우유 빠는 힘이 약해지고 심하게 보체고 하루 10회 이상의 설사를 하여 무기력한 상태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환아 몸무게는 2.1kg였으며 입원당시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의 증가를 보여 패혈증을 동반한 심한 탈수증으로 진단하여 치료하게 되었다.

치료 및 치유과정 : 입원 당시 탈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복약과 전해질 용액을 제외하고는 일단 금식을 시키고 경맥주사로 수액공급 및 항생제를 주입하였으나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chest retraction까지 나타나 모든 내복약 및 전해질 용액의 구강투여를 중지시키고 산소공급을 하였으며 증상에 따른 응급처치가 즉시 즉시 행해졌다. 제 3 병일째는 흉부 사진상 Aspiration Pneumonia로 나타나 습도기를 머리위에 대주고 이에 따른 치료도 하게 되었다. 상태는 계속 호전되지 않아 incubator 내에서 간호를 받게 되었으며 전혈 40cc를 수혈하였다. 4병일째부터는 설사는 멈추었으며 L-tube로 Gavage.

feeding 을 시작하고 제 5 병일째는 nasal bleeding 이 약간 있었으면서 혼름에 petechia 가 나타났고 원쪽 겹지풀에 생긴 redness 가 necrosis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례한 증상은 증상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져 제 9 병일째부터는 증상이 호전되어 손끝은 깨끗이 아물고 산소공급도 그치고 우유도 입으로 먹게 되었다. 차츰 증상은 서서히 호전되어 갔으며 26 병일째는 몸무게가 400g 늘고 일반건강 상태도 호전되고 흥부 사진상의 폐열 양상도 호전되어 외래로 치료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간호문제 : ① 수액요법에 따른 간호문제—정확한 양이 일정한 시간내에 올바르게 혈관으로 주입되고 있는가 관찰하는 일. ② 산소공급에 따른 간호문제—산소의 공급량이 적당한가 자주 관찰하고 산소공급 튜브 끝이 막혔나 자주 점검하고 바꿔주는 일. ③ 저체온 문제—보온을 위한 더운 물주머니를 화상 입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로 새지 않게 발밀 담요 사이에 끼워주는 일과 체온을 자주 재보는 일. ④ 손가락상처 및 배꼽처치 문제—매일 dressing 해 주는 일. ⑤ 가습기 사용 문제—찬 물바람으로 인해 기침을 하고 체온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 보호자를 잘 이해시키며 가습기 사용 효과 및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자주 사용해야함을 강조하고 감독하는 일. ⑥ incubator 간호 문제—incubator 내의 온도, 습도를 적당히 유지시키며 갈염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한번에 여러 처치를 시행하도록 신경을 쓰는 일. ⑦ 영양문제—급식인 상태에서는 치시된 수액량을 정확히 공급해 주고 우유영양을 시작한 후부터는 하루 필요한 양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매일 물투게를 채는 일. ⑧ 퇴원시 보호자 교육 문제—환아의 갈염예방을 위해 깨끗한 환경에서 키울 것을 주의시키고 적당한 영양을 위한 영양법을 지도해 주는 일.

간호시행시의 문제점 및 결과 : 이 환아 간호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보호자 문제였다. 산모는 몸조리를 해야 할 시기이므로 환아를 간호할 수 없어서 할머니가 병실에서 간호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는 어떤 생명에 대한 애착도 없었

을 뿐더러 신생아를 간호하는데 여러 면으로 부적당하였다. 환아 손가락풀의 감염도 할머니가 대중요령으로 쳐했다고 바늘로 아주여 일어난 문제였고, 환아의 우유 먹이는 법도 잘못되어 있었으며 이 환아의 치유에 대해 기대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증상에서 그냥 퇴원할 것을 의료팀에 요구했으며 간호원의 간호행위와 차고에 비협조적이었다. 이에 환아의 아버지와 면담하여 간호도중 제 5 병일째부터는 아버지가 간호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의료팀의 치료에 신뢰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어 환아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신생아 간호에 있어서는 세밀한 간호원의 간호 못지않게 보호자의 생산적이고 협조적인 간호가 현실에서 요구되고 있다.

(2) 폐렴을 등반한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 : 생후 4 개월 된 남아(CHD with Pneumonia)

입원 당시 상황 : 생후 4 개월 된 남아로써 생후 3 개월 될 때부터 상기도 감염증상이 나타나고 호흡곤란,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하에 3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응급실을 통해 본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당시 환아는 심한 호흡곤란, 청색증 및 과민상태로써 산소공급을 받고 있었다.

치료 및 치유과정 : 입원 당시부터 종합 상태로 중환자 격리 복방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산소공급, 수액공급, 항생제, 진정제, 이뇨제 투여, Digitalization 등 증상에 따른 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9 병일째 의사지시에 따르지 않고 보호자의 의사에 의해 치료를 포기하고 퇴원하였다.

간호문제 : ① 수액오염에 따른 간호문제—심장질환 환아이므로 심장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시한 양이 정확히 들어가도록 수액 set 에 microdropper 를 부착시키고 자주 관찰하는 일. ② 산소공급문제—제 1 사례와 동일. ③ suction 문제—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주 상기도 분비물을 제거해 주는 일. ④ 가습기 사용 문제—제 1

■ 특집 : 세계아동의 해와 간호사업

사례와 동일. ⑤ 진정시키는 문제—심장질환 환아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써 가능한한 한 번에 여러 처치를 시행하고 환아를 평안한 자세로 유지시키고 부득이한 경우는 진정제를 사용하여 서라도 진정시켜 주어야 하는 일. ⑥ Digitalization 시 간호문제—정확한 약의 용량이 정확한 시간에 투여되어야 하며 약의 투여시 전후의 배박수를 자주 채어보며 소변 배설상태를 관찰하는 일. ⑦ 영양문제—필요량의 우유와 수액공급을 분분하는 일. ⑧ 퇴원시 보호자 교육문제—중한 환아의 치료를 포기하고 퇴원하는 보호자 이므로 심리적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질환에 대해 이해시키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치료할 것을 권유해 보고 퇴원 도중 환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가르쳐 주는 일.

간호시행시의 문제점 및 결과 : 이 환아 간호에서 가장 문제시된 것은 과민상태(irritable state)에 따른 여러 문제다. 우선 환아가 계속 보채고 고통스러워 마구 움직이게 되므로 코에 끼운 산소튜브가 자주 빠지게 되며 혼자 그냥 놔두면 떼버리기 까지 한다. 더욱이 수액주사를 유지시켜야 항생제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데 자꾸 부어서 혈관주사를 자주 놓어야 하며 나중에는 혈관도 잘 보이지 않아 놓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suction을 자주해 주어 상기도 분비물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환아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한 환아가 진정되어 있거나 자는 시간을 피해가면서 간호처치를 시행하여야 했다. 보호자들은 입원 경험이 많아 간호행위에 협조적이었으며 잘 이해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단지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좋지 못한 예후 및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포기하고 퇴원하게 되었음을 의료팀으로써 유감스러운 일이다.

(3) 성문하 협착증 : 4세된 여아(Subglottic stenosis)

입원당시 상황 : 4세된 여아로써 2개월 전 교통사고로 전주 ××병원 신경외과에서 기관절개(tracheostomy)를 하고 한달 후에 의식이 회복

이 되었으나 후두에 협착이 와서 tracheostomy tube 제거가 불가능하여 본 병원 이비인후과로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당시 환아는 tracheostomy tube를 끼고 있었으며 다른 일반상태는 이상없이 양호하였다.

치료 및 치유과정 : 오랜기간 동안 여러 차례 cannular의 크기를 바꾸어 가면서 tube를 제거해 보았으나 호흡곤란이 해결되지 않아 마지막 방법으로 N-T tube를 삽입하였으나 그 방법도 실패하여 다시 tracheostomy tube를 끼우고 한달에 한 번씩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tube를 제거해 보기로 하고 352병일째에 퇴원하였다.

간호문제 : ① cannular 소독 문제—하루 4차례 씩 inner cannular를 소독해 주는 일. ② suction 문제—제 2 사례와 동일. ③ 가습기 사용문제—제 2 사례와 동일. ④ tracheostomy 부위의 감염문제—치료 도중에 상처부위에 Pseudomonas균 감염이 있어서 이 환아가 사용한 기구소독을 별도로 시행하여 다른 환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본 환아에게도 재감염되지 않도록 청결히 상처 유지시키는 일. ⑤ 언어교육 문제—장기간 tube를 끼고 있으므로 말하는 법을 잊지 않도록 가끔씩 튜브를 막고 말하는 연습을 시키는 일. ⑥ 장기 입원환아로써의 간호문제—성장발육에 따른 영양상태 및 놀이에 관해 보호자에게 교육시키는 일.

간호시행시의 문제점 및 결과 : 이 환아 간호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은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히 불구가 되지 않나 하는 의혹심과 분노심에 가득 찬 보호자와 원만한 관계를 성립하는 문제였다. 입원기간이 장기화 되면서도 환아의 상태는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오는 보호자의 실망과 의혹심을 이해시키는 것은 의료팀으로써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환아의 교통사고에 대한 죄의식을 포함한 가해자측에의 분노심, 의료팀에 대한 불신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두번째로는 보호자의 부족한 전강개념이었다. 아무리 청결교육을 시켜도 환아의 주위환경은 청결치 못했다. 따라서 환아 역시 청결할 수 없음을 환아의 교육상

에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능한한 본 병동의 전 간호원이 자주 신경을 써서 청결교육을 시켰으며 환아의 언어교육 및 놀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퇴원시에는 보호자에게 canular 소독법을 저도해 주었으며 창상부위의 청결유지 및 막힘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습으로써 익혀서 퇴원하였다.

(4) 결핵성 뇌막염과 결핵약으로 인한 간장염 : 7세 된 남아(Tbc meningitis and Hepatitis)

입원당시 상황 : 이 남아는 2개월전 결핵성 뇌막염으로 입원하여 입원 4병일째 동공부동증 (Anisocoria), 반흔수(semicomma)를 나타내어 신경외과로 부터 ventricular 체외로 인한 수두증 (Hydrocephalus)의 진단하에 V-P shunt 한 후 일개월 전 퇴원하였다. 퇴원 후 식욕부진을 보였으나 열은 없었으며 음식을 먹일 때 깊이는 등 자극을 주어 먹였으며 가끔 구토를 했으며 열출간의 황달기가 있어 입원하게 되었다. 그 당시 결핵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입원당시 환아는 악태증(cachexia) 상태였고 입으로 전혀 먹지 못했으며 사물은 보지 못하나 빛에는 반응하고 아픔에 대해 심한 신경질과 욕으로 표현하였다.

치료 및 치유과정 : 간장염은 결핵약 투여를 중지하고 비타민 투여로 호전되어 36병일에는 간기능 검사에서 100% 좋아졌다. 심한 cachexia 상태에서 입원동안 계속 투브를 통해 영양상태를 개선해 주었으며 41병일에는 투브를 제거하고 적은 양을 자주 입으로 먹이기 시작하여 식욕이 많이 호전되었다. 따라서 결핵약도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차츰 증상이 호전되어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여 외래를 통해 치료 받기로 하고 55병일째에 퇴원하였다.

간호문제 : ① cachexia에 따른 간호문제—자주 자세를 변경해 육창을 방지하는 일. 활동이 거의 없으므로 혈액순환을 위해 전신 맞사지 해주는 일. 기본 위생관리를 지도 감독하는 일. ② 통증호소에 따른 간호문제—cachexia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스러워 신경질적이고 욕을 하는데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아를 다루고

환아에게 이해시켜서 나쁜 버릇을 고쳐주는 일. ③ 영양문제—식욕부진으로 인해 음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환아에게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시켜 먹도록 권유하는 일. ④ 보호자 교육문제—학령기 아동이므로 모든 처치를 환아의 이해를 구해 가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간호할 것을 지도시키는 일.

간호시행시의 문제점 및 결과 : 이 환아 간호에서는 식욕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우선적으로 식욕부진으로 먹지 못함을 부당한 방법(보호자가 꼬집어 가면서 먹이려 한 점)으로 먹이려 하는데 대한 거부반응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이해시키고 환아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성립한 후 환아의 신뢰감과 충분한 이해를 얻어 적은 양을 자주 먹임으로써 식욕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 밖에 환아의 무료함과 고통을 잊도록 책을 읽어주거나 라디오, 카셋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들려주는 등 환아의 교육을 계속시키도록 보호자를 지도하였다. 차츰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갈에 따라 wheel chair로 산책도 하기도 하였으며 퇴원시는 욕하는 버릇도 사라지고 짐짓표현도 정확하게 되었다. 퇴원후 오랜 외래치료와 보호자의 친호로 6개월 후에는 학교에까지 다니게 되었음을 의료인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일중의 하나다.

III. 결 론

이상과 같은 간호를 시행하기 위해서 소아병 등에 근무하는 간호원들은 소아과 간호원 나름대로의 공통된 특징을 갖게 되는 듯 싶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아과 간호원은 보호자에게 같은 얘기를 여러번 반복해 상세히 설명하게 된다.

소아·간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극도로 신경이 쇠약해 있는 보호자들은 흔히 간호원들이 가르쳐 준 처치를 잊거나 이해를 듯하고 보호자 나름대로 환아에게 고통을 안 주는 방향으로만 그르게 환아를 다루게 되므로 자주 인지시키고 충분한 이해를 얻어야 바른 간호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59페이지로>

학대사실이 심한 경우엔 사적당국에 고발하여 법적처벌을 받게하는 강경한 방침을 마련하고 있음니다"라고 박부장은 얘기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담 경고에서 가해자와의 해결이 가능했다고 한다.

개설된 이후 접수된 신고건수는 모두 60건으로서 2~3일에 1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 중에는 전화신고가 가장 많고 직접 방문은 6건(10%) 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학대받는 어린이가 0.06%나 되며 한국도 1년 4,800건 한달 400건 이상 하였으나 의외로 적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그발정신이 약하며 미국과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어 제대로 신고를 안하는 것 같다고 박 사업부장은 유감스러운 표정을 짐작지 못했다.

현재까지의 신고 내용은 신분매달소년이 배달을 그만두려 하자 보급소장이 폭행을 가한 경우, 부친의 이중 살림으로 인한 자녀의 문제; 형의 등성에 대한 구타, 학교 선생이 부유층 아이반 편애한다는 등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가끔 영통한 내용도 신고된다. 대개 학대아의 가정적 환경은 제고될이거나 어른의 사랑이 부족한 경우라 한다.

이 센터에는 사회사업을 전공한 상담자가 2명 있다. 이들이 촉매자 역할을 하며 신고내용을 다루기 위해 가정방문하여 직접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보교 상담하는데 문제를 깊숙히 다루기에 눈이 인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야 할 사건의 처리기간이 걸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아동학을 전공한 상담자가 있으면 더 효과적인 사회봉사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엔마나 적극적이 고 협조적인 호응이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아동권익보호신고서를 통해 사회의 새로운 인식과 관련자의 각성이 있어 아동의 권익이 더욱 옹호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朴承子 記〉

<49페이지에서>

(2) 소아과 간호원은 모든 환아를 좋아하게 된다.

환아와 원만한 유대관계가 성립되어야 간호시행에 도움이 되므로 환아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신뢰감을 얻도록 환아를 다루어야 하므로 저절로 환아와 친구가 된다.

(3) 소아과 간호원은 세심하고 조심성 있게 행동하게 된다.

환아에게 갖은 괜찮아 요구되며 조그마한 변화에도 보호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조심성 있게 환아를 다루고 행동하게 된다. ■

